標準住宅의 生活化

—標準住宅의 研究와 內實化 서둘러야—

宋 鍾 奭〈延世大教授〉

1. 標準住宅의 定義

1980년대의 새 歷史를 맞이하여 우리 政府는「公共住宅建設 및 宅地分割의 基本計劃」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既存住宅数와 맞먹는 500萬戶의 庶民住宅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未曽有의 거대한 国家的 福祉建設事業이며 그처리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国民住居生活의 質을 가늠하는 至大한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겠다.

과거 6.25전쟁 収復直後 1950년말부터 시작된 援助住宅의 대량건설을 시초로 自助住宅, 庶民住宅, 低所得層住宅, 最小限住宅, 農村改良住宅, 組立式住宅, 市民아파-트, 豪華住宅, 聯立住宅 및 太陽熱住宅등 여러가지 이름아래 지금까지 약 280萬戶가 政府主導의 公共部門과 民間主導部門에서 건설되어 왔다.

이 建設과정에서 내용과 크기의 차는 있지만 標準型住宅이 제시되어 同一型의 量産化에 기여 해왔다. 住居의 大量建設에는 標準型 책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標準型은 各部品의 規格化와 単純化에 따르는 建設作業의 능률화와 아울러 工期 短縮에 도움이 됨으로서 建設費 절감에도 유리하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標準住宅은 이와같은 技術的 生産的 내용이외에 한사회의 수요자들에게 標準住居로서 추천할수 있는 시범적인 空間利用과 구조 및 設備上의 장점을 갖고있고 그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제안되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技術的내지 計劃的 示範으로서 우수한 제안이 나올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것은 単一案이 되는 劃一化가 아니고 몇가지의 変化体系를 갖인 多様性 標準型이 작성될 수도 있다.

이와같은 뜻에서 標準住宅이 갖추어야할 定義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① 標準住宅은 時代性을 띈 一定期間의 時効性을 갖고있다. 따라서 年代가 흐르면 개선되고 발전되는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② 気候 慣習 및 風土등을 감안한 地域性을 감안해야 하며 住生活의 과학화라는 뜻에서 선도적인 제시가 바람직하다.

③ 所得 및 文化的 類似階層을 한묶음으로 분류하는 몇가지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④ 世帶 및 家族構成과 年令 性別등을 고려한 수요구분이 있어야 한다.

⑤ 住宅面의 크기와 형태에 관한 科学的인 규명과 그 체계화가 있어야 하며 空間利用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 材料, 構造 및 設備에 관한 최신정보의 활용과 그 経済性에 관한 고도의 生産研究開発이 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⑦ 標準住宅은 劃一的인 単一案이 되어서는 안되며 각수요階層別, 家族数別, 面積別, 室数別, 構造別, 価格別 등으로 전개되는 선택의 여지를 두어 다양하게 준비된 目録式住宅 (Catalog House) 으로 계열화하고 구조적으로 共同部品을 Open System 化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

2. 標準住宅의 機能

標準住宅에 대한 建築的 機能으로서 다음과 같은

5대요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 기능은 標準住宅을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하는데 선행 하는 기초적 내용으로서 상호관계를 체계화하고 종합해야 할 것이다.

1) 住宅의 面積, 家族数 및 寢室数

우리나라에서는 住宅의 規準設定이 공식화된 것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쓰이고 있는것은 家族数가 아니고 面積規準입니다. 특히 集団住宅建設에서 누구인지 모를 가상의 入住家族数, 子女의 년령과 성별등을 참작한 寢室크기나 수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크기로된 획일적인 것이다. 가족구성의 형태에 따라 적정크기의 寢室面積과 寢室数가 부여되며 이것은 전체 住宅의 크기를 좌우하는 큰 요소가 된다.

住宅面積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就寢空間으로 兼用하는것. 예컨데 韓屋의 温突房처럼 寢食을 같이 하는 空間利用을 下限으로 볼수있고 上限을 共用空間으로서 필요한 모-든 室을 독립시켜 갖추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住宅의 크기는 家族数와 직결된 寢室数, 共用室의 분포(機能分化度) 및 収容人員에 대한 各空間의 狹少度와의 사이에 상관 관계를 갖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住宅面積, 価格 및 質

住宅価格은 주택의 질과 면적과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주택의 질이라함은 建築材料 構造 窓戸 및 設備의 등급에 의한 함수치이다. 따라서 주택의 질을 약간 낮추면 同一住宅価格일때 住宅面積은 증가한다. 면적과 가격을 고정시키고 질을 올리는 연구의 여지는 아직도 있다고 본다. 部品의 尺度調整과 平面計劃 및 構造計劃의 합리화와 새로운 우수資材 및 工法活用과 능률적인 공사관리등이 가격인하에 기여될 수 있는 것이다.

3) 住宅 및 室의 形態와 空間의 効率性

주택의 형태는 正四角形을 포함한 矩形変化의 複合形중의 하나가 되는것이 일반적이다.

構成分子로서 各室은 그속에 들어있는 矩形의 集合充填이라고 할 수 있다. 各室의 크기와 모양은 제나름대로 요구되는 空間的, 機能的 의미를 지니고 있다. 住宅의 外部形態와 内部의 群少集合充填 사이에는 서로 견제하고 타협해야할 機何学的 관계를 맺고 있다.

室配置의 상호관계라는 位相学的 배열은 住居計劃을 중요한 부분으로서 구체화되는 내용이며 외부의 住宅形態와 各室의 형태와 그 配置構成이 幾何学的으로 정리되어야 할 当為性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各室의 형태와 크기는 그室의 空間構成要素가 되는 人員数와 人間動作의 성격, 필요한 収納空間, 家具 및 通路空間들이며 이들 상호간의 합리적인 배합과 그 넓이가 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室内의 空間構成要素들의 상호관계에서 시작되어 궁극에 가서는 住宅의 적정크기와 모양이라는 하나의 기능적인 체계에 수검되어야 한다.

4) 固定式과 可変式

住宅은 構造的 組立면에서 볼때 固定式과 可変式이 있다. 固定式은 우리나라에서 하고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영구적으로 不変固定된 구조이다. 可変式은 内部間壁의 可変移動式과 외부확장 또는 축소의 可変式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실현을 보지 못한 것이다.

可変式 住宅開発은 어느것이거나 모두 고도의 이론적, 실제적 연구와 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西欧先進国에서는 193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理論的 개발를 하고 있다.

固定式 住宅은 그것이 갖는 堅直性이 결함이되고 영구적인 안정구조가 장점이 된다. 可変式은 空間活用의 신축성과 증개축을 미리부터 계열화하는데 그 특징을 지니고 있다.

5) 構造 및 設備

量産을 전제로 할 경우 湿式보다 乾式 및 半乾式構造를 채택하고 材料面에서 重量材보다 軽量材를 이용하여 非熟練工에 의한 組立 人力을 증가시켜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高度性能을 갖인 断熱材와 防水組織을 활용토록 하기위한 새로운 資材開発에 대한 최신 정보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窓戸의 크기와 구조에 대한 개선방식에도 아직 연구부족이 있다. 효율적인 暖房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와 편리한 燃料管理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熱管理에 대한 연구도 가속화 되어야 할 것이다.

위생시설로서 水洗式변소의 난방문제와 浴室의 給湯施設의 경제적인 補完開発이 따라야 할 것이다. 電気照明設備에 대한 規準設定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改善普及 및 施策

標準住宅이란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분석과 실제를 통해서 理性에 의해서 조정된 의도적인 것이며 확고한 기반위에 세워진 것을 내용으로 해야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標準住宅의 高度開発은 여러가지 기능요소 중에서 그 상호관계를 종합화하고 체계화하는 상당한 분량의 미해결에 대한 연구를 고급 두 뇌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高級頭脳라 함은 3가지 분야에서 참여될 수 있다. 大学研究室 또는 建設研究所, 設計研究室, 그리고 建設業体의 부설 研究室이다. 우리나라에서 이住宅專門家가 얼마되지 않으므로 挙国的으로 참여시켜 막대한 研究費를 투입하여 年次課題로 분담해서 주체적인 연구를 数年동안 지속시키는 기초작업이 시급하다. 이러한 일에 政府는 산파 역활을 해야하고 그렇게 하는 선행 작업이 앞으로 있을 500萬戶 住居 建設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놓는 밑거름이 된다. 차제에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뒤떨어진 住居의 낙후성을 개선하고 住居産業을 올바르게 기도함으로서 경기타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1927년 独逸工作聯盟의 부회장 Miss Vande Rohe는 독일의 주택개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당시 欧州의 명건축가 33인을 초청하여 Weissenhofsiedlung 지역에 1~4층의 독립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33동을 시범적으로 건설케 하였다. 이것은 그 후 欧州 전역의 각국이 표준주택개발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47년에 西Beriin에 건설된 Hanza지구의 아파-트군도 전후 세계적인 명건축가를 초대하여 건설케 한것도 欧州의 가장 뛰어난 주거설계가 되었다. 불란스에서도 건설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널리 공모한 표준주택의 현상설계를 통하여 다양한 주거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英国에서는 건설연구소(NBA)가 1967년부터 4년간의 집중연구끝에 정식으로 발표된 公営주택의 平面계열화, 즉 Metric Shell System이 나왔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급시켰던 것이다. 美国, MIT에 있는 NJ Habraken에 의한 The Systematic Design or Sapports(1976)의 주택연구는 그 발생에서부터 12년간이 걸린 거거평면의 組織学이다. 주

선진외국에서는 標準住宅에 대한 개념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量産이전의 기초연구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시해야 하며 頂上級에 속하는 名建築家로 하여금 集合住宅建設에 참여케하여 高級頭脳의 최대활용이 한社会의 住居開発에도 좋은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住居建設이 되고나면 入住者의 생활반응을 조사하여 普及住宅의 결함을 발견, 이를 補完케 하는 후속조치가 꼭 따르고 있다.

1957년 6.25전후 復旧事業으로 UN과 우리나라政府 공동관리에 의한 ICA住宅建設이 대량으로 이루워 졌다. 이때 만들어진 標準住宅은 당시 젊은 精鋭建築家들이 거의 참여하여 설계한 것으로서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좋게 평가되고 있다. 1958년과 1959년에 각각 제1회 및 제2회 全国住宅 設計競技가 있었다. 単独住宅 聯立住宅 및 아파-트 그리고 農村住宅을 내용으로한 다양한 과제였다. 우수한 作品들이 入選되어 널리 전시회를 갖인바 있다. 그러나 그좋은 案들을 건설해 보지도 못한채 死蔵되고 말았다. 1970년대말에 우리나라 建設部등에서 내놓은 標準住宅設計図는 1950년대의 標準住宅보다 그 내용이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

標準設計図가 庶民들의 住宅建設 設計費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이제 1980년대를 맞이한 새 시대에 새로운 高度의 標準住宅의 내실화에 유의해야 할때가 온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標準住宅의 安易한 경솔한 취급이라든가 不実化에 의한 市民被害가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国家財産의 낭비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虛礼虛飾 追放하여
正義로운 社会俱現